

일부 전문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

이인숙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Study on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and Empathy in Junior College Students

Inn-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Ga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일 전문대 학생 253명이었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계열($F=3.816, p<.05$), 경제수준($F=7.960, p<.001$), 가족관계($F=11.984, p<.001$), 전공만족도($F=6.800, p<.001$)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은 계열($F=3.097, p<.05$), 가족관계($F=13.642, p<.001$), 전공만족도($F=3.323, p<.05$)에 따라, 공감능력은 성별($t=4.130, p<.001$), 학년($t=2.049, p<.05$), 계열($F=7.392, p<.001$) 종교($t=2.507,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r=.422, p<.001$),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r=.159, p<.05$),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r=.430, p<.001$)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사소통능력($\beta=.39, p<.001$)과 성별($\beta=.18, p<.01$)로서 공감능력을 27.1%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대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배양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on empathy in junior college students. A total of 253 students from 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March 11-21, 2019 via a questionnaire. Analyse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esteem depending on major, 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kills depending on major, family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with majo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empathy depending on gender, academic year, major, and relig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self-esteem and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empathy. Furthermore, in terms of variables affecting empathy, 27.1% of the variation in empathy was explained by communication skills and gender.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an effectual program is designed and applied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in order to enhance empathy in junior college students.

Keywords : Junior College Students,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Corresponding Author : Inn-Sook, Lee(Gangdong Univ.)

email: ilee001@gangdong.ac.kr

Received July 5,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August 12,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이 사회의 공감 부재에 대해 크게 우려해왔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바라보느라 타인과의 대화나 접촉의 기회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공감 부재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세대를 가로지르는 전 사회적인 문제임이 분명하다[1].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며 느낄 것인지를 생각하여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2]. 즉 타인의 상황이나 입장을 수용하고, 대안적 관점을 채택하여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3]. 이러한 공감능력은 인간관계의 효과적인 기술로서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성취되므로[4] 가정과 학교가 공감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며 자신의 내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5].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및 공감과 관련이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게 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 대해 공감을 좀 더 잘 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6]. 자신에 대한 인식과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상태와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존중, 자기이해와 자아존중감 향상은 공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공감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소통을 들 수 있다. 소통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타인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말하고 듣게 되므로 타인과 진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7].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본질적 수단으로서[8]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동시에 효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9].

전문대 학생들은 2~3년간의 직업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나아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된다. 4년

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 또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및 공감능력을 살펴보고,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해 봄으로써 전문대 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73부였으나 내용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20부를 제외한 25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 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

호: 인간-007-20190111)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목적으로만 설문자료가 사용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첫 페이지에 연구동의 문구를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자아존중감

Rosenberg[5]의 자존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0]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4점 Likert척도로 총 10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 α 는 .783으로 나타났다.

2.4.2 의사소통능력

Lee 등[11]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권경은[1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척도로 총 21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854로 나타났다.

2.4.3 공감능력

Davis[13]가 다차원적인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s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28문항이며 Cronbach α 는 .720으로 나타났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61.3%, 여학생 38.7%였고, 학년은 1학년 47.8%, 2학년 52.2%였다. 계열은 공학계열 30.0%, 예술계열 28.9%, 방송계열 21.3%, 보건계열 19.8%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 32.8%, 종교가 없는 경우 67.2%였고, 경제수준에 있어 상 3.6%, 중 78.3%, 하 18.2%였으며 성적은 학점이 4.0 이상 8.3%, 3.0~3.99 30.0%, 2.0~2.99 11.1%, 1.99 이하가 2.8%였다. 가족관계는 매우 화목함이 32.8%, 화목함 61.7%, 화목하지 않음이 5.5%였으며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함 21.7%, 만족함 47.0%, 보통 28.1%, 만족하지 않음이 3.2%였다.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07점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은 3.47점이었으며 공감능력은 3.33점이었다[Tale 1].

Table 1. Mean Score of Variables

Variable	Range	Mean \pm SD
Self-esteem	2.10~4.00	3.07 \pm 0.37
Communication skills	2.43~4.95	3.47 \pm 0.45
Empathy	2.29~4.39	3.33 \pm 0.3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계열(F=3.816, $p < .05$), 경제수준(F=7.960, $p < .001$), 가족관계(F=11.984, $p < .05$), 전공만족도(F=6.800,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공학계열과 보건계열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공학계열과 보건계열의 자아존중감이 방송계열의 자아존중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경제수준이 중이거나 하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관계가 매우 화목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가족관계가 매우 화목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족관계가 화목하거나 화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전공에 불만

Table 2. Difference of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and Empath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3)

Variable	Categories	n(%)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155(61.3)	3.10±0.37	-1.80(.073)	3.45±0.48	.928(.354)	3.26±0.34	4.130(<.001)
	Female	98(38.7)	3.02±0.37		3.51±0.39		3.45±0.37	
academic year	1	121(47.8)	3.05±0.35	-.712(.477)	3.48±0.46	.063(.802)	3.38±0.36	2.049(.042)
	2	132(52.2)	3.09±0.39		3.47±0.44		3.29±0.37	
Major	Engineering	76(30.0)	3.14±0.36a	3.816(.011) a>b	3.38±0.49	3.097(.027)	3.20±0.32b	7.392(<.001) a>b
	Entertainment	73(28.9)	3.03±0.35ab		3.55±0.43		3.41±0.36a	
	Broadcasting	54(21.3)	2.95±0.34b		3.41±0.45		3.29±0.33ab	
	Health	50(19.8)	3.15±0.41a		3.57±0.35		3.47±0.40a	
Religion	Have	83(32.8)	3.12±0.37	1.403(.162)	3.52±0.46	1.053(.293)	3.42±0.35	2.507(.013)
	Not have	170(67.2)	3.05±0.37		3.45±0.44		3.29±0.37	
Economic status	High	9(3.6)	3.44±0.35a	7.960(<.001) a>b	3.59±0.37	1.125(.326)	3.25±0.52	.443(.643)
	Middle	198(78.3)	3.08±0.37b		3.49±0.45		3.33±0.35	
	Low	46(18.2)	2.94±0.34b		3.39±0.44		3.37±0.38	
Credit	4.0≤	21(8.3)	3.04±0.49	1.989(.119)	3.46±0.49	.501(.682)	3.25±0.33	2.237(.087)
	3.0~3.99	76(30.0)	3.14±0.37		3.50±0.47		3.24±0.32	
	2.0~2.99	28(11.1)	3.03±0.39		3.42±0.36		3.41±0.46	
	≤1.99	7(2.8)	2.81±0.21		3.33±0.34		3.47±0.47	
Family relationship	Very harmonious	83(32.8)	3.23±0.39a	11.984(<.001) a>b	3.67±0.49a	13.642(<.001) a>b	3.38±0.33	1.982(.140)
	Harmonious	156(61.7)	2.99±0.34b		3.38±0.39b		3.32±0.38	
	Not harmonious	14(5.5)	2.95±0.34b		3.30±0.35b		3.18±0.28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55(21.7)	3.20±0.46a	6.800(<.001) a>b	3.64±0.50	3.323(.020)	3.45±0.38	2.525(.058)
	Satisfied	119(47.0)	3.11±0.32ab		3.45±0.39		3.31±0.38	
	Moderate	71(28.1)	2.93±0.35ab		3.40±0.46		3.29±0.33	
	Dissatisfied	8(3.2)	2.89±0.16b		3.40±0.49		3.29±0.29	

Scheffe test: a,b

족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계열(F=3.097, $p<.05$), 가족관계(F=13.642, $p<.001$), 전공만족도(F=3.323,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은 Lee등(2003)이 조사한 일반대학생의 3.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술계열과 보건계열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관계가 매우 화목한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가족관계가 매우 화목한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족관계가 화목하거나 화목하지 않은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성별($t=4.310$, $p<.001$), 학년($t=2.049$, $p<.05$), 계열(F=7.392, $p<.001$), 종교($t=2.507$,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1학년이 2학년보다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계열의 공감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예술계열과 보건계열의 공감능력이 공학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에 비해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존감과 의사소통능력($r=.422$, $p<.001$) 자존감과 공감능력($r=.159$, $p<.05$), 의사소통과 공감능력($r=.430$, $p<.001$)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Self-esteem	$r=.422(p<.001)$	$r=.159(p<.05)$
Communication skills	1	$r=.430(p<.001)$

3.5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계열, 종교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2.129로 2에 근접하므로 상

호 독립적이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TL)는 0.563~0.943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61~1.777로 기준치 10 이하로 확인되어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사소통능력($\beta=.39, p<.001$), 성별($\beta=.18, p<.01$)의 순이었으며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F=11.353, p<.001$)의 전체 설명력은 27.1%였다[Table 4].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Empathy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2.08	.19		10.506(.000)
Gender dummy	0.14	0.05	0.18	2.847(.005)
Self-esteem	0.01	0.06	0.01	0.082(.935)
Communication skills	0.32	0.05	0.39	6.238(.000)

$R^2=.271, F=11.35, p<.001$

4. 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계열, 경제수준, 가족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학계열 및 보건계열이 예술계열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계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17, 18]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을 선행연구에 비해 좀더 세분화하여 비교한 결과 계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계열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만큼 자아존중감이 낮은 계열의 경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수준이 상인 학생이 중간이거나 하인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Lim[15]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보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좌절감을 덜 경험하게 되므로 자신의 가치와 상황에 대한 존중감이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에 비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관계가 매우 화목한 학생이 가족관계가 화목하거나 화목하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수준이 높았던 선행연구[16]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Collins[17]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부모에 의해 비난, 거부, 창피, 꾸짖음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은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18]의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Lim[15]의 연구에서는 전공적성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학업에 매진한다면 졸업 후에도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직업인의 양성에 있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전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점으로 계열, 가족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열에 있어 예술계열과 보건계열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19]의 연구에서 공학계열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예술계열과 보건계열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타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예술계열의 경우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을 수업에서 학습하게 되고, 보건계열의 경우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반응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간호조재를 제공해야 하므로 타 계열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관계가 매우 화목한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족관계가 화목하거나 화목하지 않은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관계가 화목할 경우 가족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게 되거나 혹은 가족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져 가족관계가 더욱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i[2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은 전공에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수

업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은 학교생활에 좀더 성실하게 참여하여 동기나 선�후배와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져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점수는 3.3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이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Ji[20]의 공감능력 점수 3.68점, Kim과 Hong[14]의 공감능력 점수 3.43점, Kim등[21]의 3.59점보다 낮은 점수였으나 Park과 Chung[22]의 3.4점, Baek과 Cho[23]의 3.2점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는데 이는 Kim과 Hong[14], Kim과 Lee[2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Ji[20], Kim과 Choi[18]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성적이고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을 배려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므로 공감능력 또한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 있어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공감능력이 높았는데 이는 학년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없었던 Jang[25]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2학년이 1학년보다 오히려 공감능력이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계열에 있어서는 예술계열과 보건계열이 공학계열보다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예술계열의 경우 인간의 감성이나 정서를 자극하는 학습활동이 수업을 통해 제공되고, 보건계열의 경우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임상실습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Park[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종교가 있는 학생의 경우 고통이나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종교적 신념이 타인에 대한 공감에 영향을 미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18]의 연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h[2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았고, Jang[2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의 하위요인 중 관점수용과 공감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 학생

을 대상으로 한 Ji[20]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의 하부 요소인 인지공감능력과 정서공감능력이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의사소통훈련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Kim[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사소통능력과 성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능력은 다양한 경험적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데[29]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교과목을 통해 여대생들에게 공감교육을 실시한 결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시민성이 향상된 바 있다 [1]. 전문대 학생들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전문대 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계열, 경제수준, 가족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사소통능력은 계열, 가족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감능력은 성별, 학년, 계열,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사소통능력과 성별이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공감능력의 설명력은 27.1%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대 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의사소통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특히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E. A. Lee, "A study on empathy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empathy ability: with the focus 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cours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3, No.5, pp.149-168, Jun, 2017.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7.23.5.149>
- [2] M. Hoffman,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ement, In M. Eisenberg and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3] K. I. Sh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counselor education*, Ph.D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1994.
- [4] S. H. Park, *An experimental study on empathy in relation to the altruistic behavior*,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1994.
- [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e University Press, 1965.
- [6] S. H. Park, M. Y. Chang,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ir empathy with oth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22, No.1, pp.15-25, 2014.
DOI: <https://doi.org/10.14519/jksot.2014.22.1.02>
- [7] U. H. Jung, "Loneliness of Communication", Seoul: Hankookmunhwasa, 2013.
- [8] J. Williams, T. Stickley, "Empathy and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30, No.8, pp.752-755, 2010.
- [9] R. B. Rub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77th annual meeting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pp.1-24, 1991.
- [10] B. J. Jeon, "Self-concept study on the measurement possibilities", *Graduate School of Natural Science Generation*, Vol.11, No.1, pp.107-130, 1974.
- [11]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EDI, Korea, Vol.15, No.3, pp.1-145, 2003.
- [12] K. E. Kwon, *Effects of the empathy enhancement program on the empathic aware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of Nursing, Daegu, Korea, pp.73, 2017.
- [13]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1980.
- [14] J. M. Kim, S. K. Hong, "Influence of self-reflection, self-esteem, and empathy on happiness index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2, No.2, pp.113-120, Nov, 2016.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6.22.2.113>
- [15] H. J. Lim,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self-esteem*,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Busan, Korea, pp.40-42, 2017.
- [16] M. H. Kim, *A study on family system,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of Counseling Psychology, Chungcheongnam-do, Korea, pp.35-40, 2004.
- [17] Collins, G. R.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Dallas: Word, 2003.
- [18] J. Kim, Sookyung, Choi, "Influence of self-esteem, empathy and existential well-being on spiritual care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 Nursing*, Vol.22, No.3, pp.328-337, Aug, 2015.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5.22.3.328>
- [19] H. Y. Lee, *A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p.38, 2017.
- [20]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2, pp.1685-1697, Jun, 2014.
- [21] J. G. Kim, E. Y. Cheon, J. H. Yoo,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6, No.1, pp.15-24, 2018.
DOI: <https://doi.org/10.15268/ksim.2018.6.1.015>
- [22] J. H. Park,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1, pp.7698-770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698>
- [23] S. S. Baek, H. Y. Cho, "Influence of empathy, anxie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5, pp.2841-2852, Oct, 2017.
- [24] H. J. Kim, M. S. Le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37-245,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37>
- [25] J. M. Jang, *Effects of emotion clarity and self-esteem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p.32, 2015.
- [26] M. S. Park, *The difference in forgiveness and empathy as functions of gender and religion in th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p.22-23, 2010.

- [27] K. S. Oh,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empathy, self-respect,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Chodang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Cheonam, Korea, pp.49, 2015.
- [28] M. S. Kim, "Effect of communication training group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 skills and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rrectional Counseling*, Vol.1, No.1, pp.79-101, 2016.
- [29] E. J. Song, Y. K. Yang, S. K. Park, "Effect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4, pp.347-355, 2016.
DOI: <https://dx.doi.org/10.12934/jkpmhn.2016.25.4.347>
-

이 인 숙(Inn-Sook Lee)

[정회원]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보건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